

2 0 1 5  
WINTER  
V o l . 4 1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사의 따뜻한 이야기

# 원익사



Happy New Year

WONIK

自由  
+  
疏通  
+  
幸福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나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 COVERSTORY



04 **Cover story**  
2015년  
회장님 신년사

06 **Cover story**  
2015년  
대표이사 신년사

18 **Wonik News**  
원익인 뉴스  
원익가족소식

# CONTENTS

## COVER STORY



##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04 Cover story

2015년  
회장님 신년사

### 06 Cover story

2015년  
대표이사 신년사

### 18 Wonik News

원익사 뉴스  
원익가족소식

### 32 Special Edition

2014 원익 송년의 밤  
2015 원익 시무식

### 40 Special Edition

2015 원익그룹  
신입사원 임문교육

#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46 Wonik Business**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

**50 Wonik Dream Team**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2팀

**54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넷플릭스(NETPLIX)

#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58 Talk Box**  
2015년  
새해소망 새해계획

**64 Zoom in**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과장 김진열

# L I F E S T O R Y



**68 Musical**  
뮤지컬 '라카지'

**70 Exhibition**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72 Health**  
커피의 진실

**74 Economy**  
경제정책

#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원익은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닦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반도체 4사를 중심으로 모든 계열사 임직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던 한 해 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 1월에 테라세미콘을 원익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 원익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는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작년 10월 미국법인 노바켄 (Nova-Kem)을 인수함으로써 프리커서(Precursor)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2014년은 세월호 및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사회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저희 5대 주축 산업인 조선, 철강, 화학산업은 근본적 기술의 경쟁력이 없어 힘들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싸고 잘 만드는 것 만으로 부족한 산업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기술의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기업문화와 인재양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한 소통, 즉 자신과 고객, 동료에게 겸손한 자세가 소통의 출발이며 열정은 억압이 아닌 자유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배, 투명한 경영, 상호간의 인정과 겸손한 소통, 자유와 열정이 넘치는 기업 문화가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교육과 실천경영을 통하여 추구하는 문화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재를 찾고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기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또한 M&A도 우리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신사업의 기회가 된다면 적극 추진하여 100년 기업의 토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乙未年 1월

원익회장 이용한



(주)원익  
대표이사 김중철

##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2015년은 우리 원익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원익의 저력과 그동안 준비했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바탕으로 2015년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 우리는 “Your No.1 Global supply chain partner”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맞는 본질적인 변화와 혁

신을 위해 2015년은 다음과 같은 경영 방침을 가지고 다함께 노력하고 목표한 성과를 내는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첫째, 2015년은 안정적인 흑자경영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상시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내실 경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부별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전사적으로는 고정비 절감 및 인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창출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원익은 그동안 의료기기와 통상사업 유통을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구조와 사업모델이 필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신사업을 확보하고 사업화에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수출시장 및 관련 사업을 다각화 하여 또 다른 신 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선행관리와 시스템 및 제도에 의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해서 사

업 본원의 경쟁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존속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강한 기업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 조성을 위해 역할 정립 및 자발적 업무몰입을 통해 책임감을 고취하고 열린 소통으로 창의적인 생각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분야의 핵심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자세로, 혁신을 추구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고객에 집중하는 자세로,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원익 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같이 노력한다면,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해 여러분들의 노고를 거듭 격려하면서,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2015년 청양의 을미년이 희망을 가득 담고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가족분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판교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마음 뿌듯하고 자부심 가득 담고 시작했던 지난 한 해도 이미 저물고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눈부심을 가득 담은 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2014년은 우리 원익QnC도 많은 변화와 의미를 담아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2015년은 우리 원익QnC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 vision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회장님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던 가치 창출의 기업문화, 인재 발굴 및 육성, 적극적 신사업 전개 등은 우리 QnC가 Vision을 향한 첫걸음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원익의 가족으로써 원익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건실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익인의 가치와 자부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2015년에도 또 다른 의미있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의 해’ 로 양처럼 이해심을 가지고 원만하면서도 푸를 靑이 지닌 의미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필요한 긍정적 기운을 가득히 받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는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도 있었고 개발, 투자에 집중했던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하면서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임직원간의 단합된 힘과 창의적 활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소중한 성공 경험을 잊지말고 2015년 한 해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정진코자 합니다.

2015년 새해에도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른 저물가 위협,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유로존의 장기 침체 등의 좋지 않은 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여 2015년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영방침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핵심시장 강화 및 신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핵심 장비의 성능을 글로벌화 시키고, 합리적 가격, 편차 Zero화 등을 통한 고객만족에 집중하며, 또한 다양한 고객층으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과 역량이 집약된 우리의 World Best설비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고객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적기에 시장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연구개발 투자규모나 인력규모,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의 양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제품의 고품

질, 고효율 등의 비교우위 성능 先 확보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Solution을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질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정된 Resource를 집약하여 효율을 최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고,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한단계 성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는 않되,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나 비효율적 시간을 최소화 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에 집중과 몰입이 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하겠습니다.

제조 Lead Time을 더욱 단축시키고, 연구투자에도 목적과 방향,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기업문화가 정립

되어야 독창성이 생겨나고 조직의 시너지를 가져 궁극적으로 회사 경쟁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 loyalty를 확대하고, 학습문화의 정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 직원의 좋은 생각과 행동이 함께 동행되어야 합니다.

직무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회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또다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범하지 않은, 비상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동료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내외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틀에 박힌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뿐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보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실패이며, 나머지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옆사람의 성공입니다. 노력이 지켜워지는 순간에도 노력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거머잡니다.

끝으로, 지난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이건중

###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시황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전사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선포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재해 9배수 달성, 생산성 대상 대통령 표창,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가족친화기업 달성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은 우리 원익머트리얼즈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미국법인 노바켄(Nova-Kem)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인 프리커서(Precursor) 사업에 진입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특수가스사업에서 우리의 성공에는 이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스타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라는 조직력보다는 ‘나’라는 개인기에 의존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기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공의 핵심요인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해 경영방침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 창달 - “우리”’을 선언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리커서 사업을 비롯한 원익머트리얼즈의 모든 새로운 사업의 성공핵심 요인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아닌 ‘우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누군가 틀린 말을 해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작은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회사가 비전을 달성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거기서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열정’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The One from Many!!!!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를 위해 대표이사부터 앞장서서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선도, 혁신, 변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임직원을 독려하고 과제를 제시했던 것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함께 변화해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아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아울러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장을 선도하고, 혁신하고 변화에 기여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시다.

일상화된 혁신을 통해서 우리조직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품질, 마케팅, 서비스, 안전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와 혁신은 과거와 미래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오창 지역에 새로운 프리커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향후 중국 생산 법인 진출을 준비하게 되는 만큼,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놓은 영업 인프라를 더욱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안전관리를 넘어선 안전 혁신의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로운 사업에 성공적인 글로벌 파트너링 성과를 이제는 결실을 이뤄내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이와 같이 가슴 설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원익머트리얼즈 가족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익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조직문화를 더욱 더 확대 발전시켜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즐겁게 하나하나 구현해 나갑니다.

새해에는 우리 원익 가족 모두가 새로운 성장을 향해 도전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원종합개발주  
대표이사 박영일

## 임직원 여러분!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시기 회사의 생존을 위해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들과 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러한 아픈 상처가 떠난 사람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준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지난해 연말 용인 마북동 아파트 부지 확보에 이어 연초 2월에는 포항дук량동 재건축사업에서 좋은 결실이 기대되는 등 새해 벽두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게 되어 2015년 새해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입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해 초입에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식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국내외 시장경쟁의 지속적인 심화,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가하락, 중국 및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건설업계에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택시장에 올해부터 중대형 건설사들의 컴백이 본격화되어 수주와 분양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극복하고 제2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 한 해는 '내실경영을 통한 이익 실현'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면교사삼아 철저한 반성과 리스크관리를 통해 회사의 이익 실현을 위한 업무혁신과 실천 전략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구축을 위하여 Vision과 연계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고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종합부동산회사로의 성장과 전문화에 대비하여 '개인의 전문역량 강화'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소통'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창의성 발현과 상하 직원간, 부서간의 유기적인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내가 인식하고 내가 행하는 업무가 과연 가장 최선책인지, 또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준비된 대비책은 있는지, 이러한 방법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급효과까지도 고민하는 전략적이고 디테일한 업무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상 리스크와 역량의 문제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업본질에 보다 충실하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자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 그 자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한해를 종합부동산회사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체질 및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 우리가 선포한 비전의 실천전략을 되짚어 보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것, 즉 새로운 가치를 찾고 고민해 나간다면 신원의 미래는 한층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저 또한 2015년 마지막 날 우리 임직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노력의 산물을 마

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올미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해에는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친애하는 원익큐브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올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직원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보이는 새해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은, 매년 행복하고 희망찬 순간입니다. 안팎으로 힘들었던, 그러나 보람과 결실이 있었던 2014년을 우리의 역사 속에 남

겨두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었던 2014년 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악화로 인한 원익큐브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 하락, 신규 품목 발굴 미진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결국 매출 및 이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응하고자 했던 강도 높은 사업활동, 비용절감 노력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14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역량과 능력이 얼마나 큰 지를 알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영업이익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신규 공급선 발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단지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일 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몇 일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 매출 5,000억, 영업이익 250억, 시가총액 5,000억'의 2020년 비전수립 후 맞는 첫 해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의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세가지씩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도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단 한치 앞의 예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도전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사로부터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부가가치의 ITEM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 적소에 모두 사용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익숙한 방식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2015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엔 분명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과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앞서가 있는 곳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써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이루어 질 때 이는 원익큐브의 성장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원익큐브의 발전과 성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는 2020년 비전으로서 이미 우리의 책임이자 권한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우리는 보다 수월히 우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결국은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께서는 2015년의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2015년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 입니다. 서로 잘 화합하고 융화하는 양처럼, 그리고 진취성과 적극성을 뜻하는 청(靑)의 기운으로 우리의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우리 테라세미콘이 원익의 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A3 라인과 중국 디스플레이 수주 등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였고 ELVA 개발 및 요소기술 개발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오로지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5년은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서 국내 경기는 소폭 개선이 예상되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 등 잠재적인 Risk 요인으로 더욱 어렵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경영을 해야겠습니다.

2015년 경영 방침으로 “혁신을 가속화하여 제 2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자”로 정하고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제품을 조기 개발하고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겠습니다.

현재의 Oxide/Anneal 설비와 LTPS FURNACE, PI CURE 장비 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의 동력이 되는 ELVA를 포함한 전략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차세대 설비를 선행 개발하는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현재 한창 개발하고 있는 Elva는 반드시 양산 평가에 성공해서 고객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해야겠습니다.

또한 중국 시안과 A-PJT의 공정 확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M/S를 빠르게 확대해야겠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 목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객별 맞춤형 차별화 전략과 demo 평가 및 영업 기술 인력 전진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set up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존 제품은 조기에 성능과 품질을 안정화하여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신규 거래선 확대에 이어서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등설비, 명품설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선행 개발하여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가 육성되고 이에 맞는 연구 개발 Infra를 구축하고 그룹 관계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야겠습니다.

둘째, 품질 최우선 경영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실천해야겠습니다.

“고객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고객 입장에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고객의 기술 Trend와 Needs를 항상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사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발 초기단계, 사양 검토단계부터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을 선도해 가고 자주 품질 체계를 만들고 불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전 부문 혁신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개발, 제조, 구매, CS등 전 부문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품질을 혁신하고 Lead Time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절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양 표준화, Module화, 경비 절감 등도 추진해 가야 합니다.

2014년은 전 부문 비효율이 많았고 이로 인한 비용 손실도 매우 컸습니다.

2015년은 Process혁신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품질비용 50% 감소 목표를 받

드시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일하는 방법과 절차를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시도, 도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생각합니다.

넷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문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는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기업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업 문화와 인재 육성이라고 믿습니다.

자유/소통/행복 문화 확산을 통해 speedy하고 Dynamic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비전을 향해 한 방향으로 협업해가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소통은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고객과 동료에게 겸손한 자세가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테라 문화를 만들어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테라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 개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혁신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테라가 멋진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네가지 C를 실천해갑시다.

변화의 Change, 도전의 Challenge, 소통의 Communication, 협업의 Collaboration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서간, 부서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것인가를 여러분 개개인의 혁신 목표로 실천하여 제 2 도약 기반을 구축해 나아갑시다.

꿈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서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015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도전해 나갑시다.

양띠 해를 맞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회사의 경영환경은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 및 중국과 유로존, 신흥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 굴곡 많은 국내외 경제 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상황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주식시장도 수년째 지속해 온 1,800~2,000포인트 선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예상

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들의 금융불안 확산과 환율 변동 확대 가능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올해 역시 어려운 고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으로 위기를 충분히 예측하고 철저히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임직원 여러분에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역량 강화입니다.

투자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딜소싱 능력과 투자다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회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던 것은 외부환경 이외에도 투자회사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딜소싱 능력 제고와 함께 창의적인 투자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와 인재 확보입니다.

투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지금처럼 자금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문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역량 기반 하에 단독투자가 가능한 핵심운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이를 위한 인력 Pool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스템 개선입니다.

지난해에 저희회사는 투자 프로세스, 위임전결 규정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운용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화, 간소화 등 회사 전반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원익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와 열정이 살아 숨쉬는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같은 창의와 열정의 기업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내재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경영환경이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이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자세로 기본으로 돌아가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특히 올해는 우리회사의 2020년 비전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해 입니다. 우리가 수립한 원대한 비전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임직원 가족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올해는 청양의 의미를 담아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4년은 Global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Big buyer들의 재고 감축 및 Order

축소 등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며 전 직원의 희망을 담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마침내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한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역시 세계 경제는 희망적이지 않고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기도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난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5개 업무 개선팀을 발족하였고, M&A를 준비하는 등 열정적으로 201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찾고 품질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체계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1%의 사람은 위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 끊임 없이 생각하고 행동 하면서 위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15년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기에 맞설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 없는 도전 정신과 실행,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2015년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해로 만들기 위

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헤쳐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우리는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열정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철혹 같이 어둡고 긴 터널을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었던 터널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그날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과 동료와 회사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비전이 달성되는 초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씨엠에스랩  
전무이사/경영총괄 김재호

### 존경하는 씨엠에스랩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10여 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씨엠에스랩의 대표 브랜드인 셀퓨전씨는 고기능성과 안전처방을 기반으로 피부전문가들이 시술 후 원하는 병원용 화장품 중 피부 트러블 유발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국내 4000여 개 병의원·에스테틱에 입점하여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씨엠에스랩은 위와 같은 셀퓨전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까지 병원 유통(B to B)과 소비자 직접 유통(B to C)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코스메디컬 브랜드 컴퍼니로 올라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라인과 홈쇼핑,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소비재 유통 패러다임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어 병원의 문턱을 넘어서 소비자 직접의 확대를 모색하고, 최고의 가치 창출을 위한 신 브랜드 전략과 혁신적인 히트상품 개발에 힘써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한국을 대표하

는 코스메디컬 브랜드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주력제품 36종의 위생허가를 받은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 성과가 나올 수 있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세계41개국에서도 우리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사랑 받는 국가대표 코스메디컬 브랜드로 셀퓨전씨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는 씨엠에스랩이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정성으로 가꾸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씨엠에스랩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윈익엘앤디  
대표이사 이재천

## 원익엘앤디 메이플비치 가족여러분!

지난 한 해는 100년 만에 폭설, 세월호 사건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준의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나름대로 선전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원익엘앤디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 대표로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익그룹도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함은 물론,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새해는 원익 100년을 준비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익엘앤디의 새해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익엘앤디 메이플비치 회사를 임직원 개개인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가는 자아실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 자식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회사, 퇴사 후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떠받들고 배려하고 지원하며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CEO인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매출목표 100억 이상을 돌파하고, 강릉물류단지를 비롯해서 그동안 숙원 사업들을 완성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희망의 사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역량을 마케팅에 전진배치하고, 회사의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부조직은 그동안 Succession plan을 통해 훈련받은 차석들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더 훈련시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더 신속한 소통, 더 넓은 소통, 더 깊은 소통, 고객 중심의 소통이 되도록 시스템을 디지털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HealTainment Creator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원익엘앤디의 미래 엔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치는 흥익인간이라는 원익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미래

가치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신사업의 한 발을 내 딛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상의 모든 것은 '고객'이 찾아주고 인정해 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고객의 고충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고객은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고객은 감동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고객에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이 CEO처럼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원익엘앤디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려와 노력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행복을 느꼈을 때, 나의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나의 배려와 노력으로 고객이 만족했을 때, 나의 행복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새 해를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주)원익

## 스마트워크 도입

(주)원익이 영업활성화 및 효율적 사무실 운영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 하였다. (주)원익은 그룹웨어 고도화, ERP 연동, 보안과 권한설정 등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지정석 없는 FreeZone을 만들었다. 12월 19일 사전교육 후 개인별, 팀별 정리작업을 마친 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외에서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 보편화되어 있는 근무형태는 아니지만 스마트워크 도입은 (주)원익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원익

## (주)원익, 필립스 초음파 시스템 어피니티 판매 인기

## - 어피니티 시리즈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등 국내 전문병원 공략

(주)원익은 필립스 초음파 진단장비인 어피니티(Affiniti)의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원익이 보급하는 어피니티는 복부, 심장,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 등의 분야와 산부인과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고화질 하이엔드 장비이다. 특히 3차원 입체영상기술은 해부학적인 정보들의 처리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측정값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준종합병원 및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최된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의들이 어피니티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임상시험 결과 기존 초음파 진단장비 대비 검사시간의 현저한 단축과 정확한 영상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피니티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장비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처리속도 개선 UI 및 인체공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5년 동안 세계 20여개국 2,000여명의 사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또한 독자적인 퓨어웨이브 크리스탈 기술을 활용해 해상도 높은 영상을 구현한다. 특히 낮은 전력 소모, 혁신적인 무게 감소 및 공간 효율성을 높인 장비 사이즈와 디자인, 백업 배터리 장착, 무선 지원과 원격서비스 지원 등의 옵션을 제공하며, 접이식 21.5



인치 고화질 LCD 모니터와 의료진 환경에 최적화된 제어판 및 터치패널을 적용하여 의료진의 편리성이 높다. 대학병원급 최신 초음파 장비가 필요하지만 장비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전문병원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주)원익 유효봉 헬스케어1사업부장은 “고화질 영상과 고기능을 구현한 최신 초음파 장비를 필요로 하는 병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사양의 초음파 장비를 도입하려는 전문병원, 준종합병원, 건진센터들을 중심으로 필립스 초음파 보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주)원익

### (주)원익, 스킨리모델링 ‘이노젝터 라이브 워크샵’ 개최

#### - 이노젝터 임상사례발표, 라이브 시술 및 다양한 시술방법 공유

(주)원익은 오는 15일 분당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원익빌딩에서 ‘이노젝터 라이브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메조용액을 진피조직에 회오리 형태로 침투시켜 피부재생을 촉진시키는 이노젝터 소개와 임상사례발표 및 술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노젝터는 공기압을 이용한 물리적 자극과 메조용액 주입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 세계 최초로 공기압을 이용한 니들리스와 일렬 멀티니들 방식이 모두 가능해 리프팅, 흉터치료 등 피부재생과 주름개선, 메조시술 등 다양한 피부시술에 활용되고 있다. 이노젝터는 피부속 퍼짐성이 우수하고 주입액 손실율과 통증 및 출혈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이번 ‘이노젝터 라이브 워크샵’에서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가 이노젝터 시술의 임상사례 및 라이브 시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배준호 팀장이 이노젝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핸즈온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노젝터는 올해 하반기 부울경피부치료 심포지엄과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의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요 피부과 병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피부과 시술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노젝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술 방법을 익힌다면 다양한 적응증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목, 미간, 눈가, 눈밑, 이마 등 각종 주름과 흉터, 리프팅, 탄살 등 15가지 정도의 피부과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멀티플레이어 시술기기로 주목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원익 헬스케어사업본부장 이창진 전무는 “향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인 라이브 워크샵이 외산을 뛰어넘는 이노젝터의 혁신성을 직접 시연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주)원익큐엔씨

## (주)원익큐엔씨, 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부문 표창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10월17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정 42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5회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에서 단지환경개선부문 표창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와 구미 아이티파크 경영자 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발전에 공이 큰 기업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주)원익큐엔씨는 구미시에 퀴즈 공장외에 세라믹과 세정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높게 인정받아 환경개선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10월17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정 42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5회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에서 단지환경개선부문 표창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와 구미 아이티파크 경영자 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 (주)원익큐엔씨

## (주)원익큐엔씨, 비전 선포 기념 타임캡슐 전시



(주)원익큐엔씨는 비전선포식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이는 비전을 되새기고 향후 목표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한 이벤트로 당사에서 제작한 퀴즈웨어에 10년 후 개봉했을 때 현재를 되새길 수 있을 물건들을 담았다. 대표이사 및 임원진을 포함한 전 사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엽서'가 개인캡슐 형태로 담겨있으며, 이외에도 2014년 다이어리, 원익인 사보, 사진 앨범, 조직도, 신인사제도 매뉴얼, 핵심가치 팸플릿, 브로셔, 동복 조끼, 기념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타임캡슐은 2014년 12월 31일에 봉입하여 현재 세정사업부 로비에 전시되어 있으며 2023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캡슐을 작성한 현 재직자 중 개봉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사원에 한하여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주)원익큐엔씨의 임직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과 더불어 타임캡슐에 담긴 비전과 개개인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10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원익큐엔씨는 비전선포식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이는 비전을 되새기고 향후 목표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한 이벤트로 당사에서 제작한 퀴즈웨어에 10년 후 개봉했을 때 현재를 되새길 수 있을 물건들을 담았다. 대표이사 및 임원진을 포함한 전 사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엽서'가 개인캡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비전 2020 선포

지난 10월29일, (주)원익큐엔씨 복지관에서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식순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을 한 후 뒤이어 비전선포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대표이사의 기념사 및 비전 도출 과정과 구체적인 전략 및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전 사원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원익큐엔씨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 사업 추진, 지속성장을 위한 신수종사업 발굴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2020 매출 5,000억, 이익률 20%, 신용도 AAA를 달성하여 '2020년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 및 장비기업에 한 가지 이상의 핵심 Part를 공급하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이 된다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날 선포한 비전2020은 'Global Top5 복합 소재 부품 전문기업'이다. 이날 행사는 대표이사 및 임원진, 직원협의회 대표가 함께 케익 커팅을하고 전 사원이 다함께 축배를 들면서 마무리되었다. 박근원 대표이사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비전 2020을 향해 더욱더 성장해나갈 (주)원익큐엔씨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2014 송년의 밤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12월 23일 '2014 (주)원익큐엔씨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인근 호텔 연회장에서 18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었다. 1부 공식행사에서는 올해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표이사의 인사말 후 케익커팅 및 축배의 잔을 들었다. 이어 준비된 뷔페로 만찬을 즐긴 후 인기 MC



의 진행 하에 가수 박미영과 박남정의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이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장기자랑이 단연 눈길을 끌었는데, 본부별 팀별 총 8팀이 참석하여 기타연주, 노래 등 다양한 끼를 선보였다. 김경호의 비정을 불러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준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김준영 사원이 심사위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세정사업본부와 품질경영본부에서, 노력상은 세라믹사업본부

에서 차지하였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순서로 전기밥솥, 청소기, 커피메이커, 이불, 무선스피커 등의 선물을 타갈 수 있는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다양한 반응으로 웃음을 자아내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회사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전 임직원이 웃고 즐기는 소통과 화합하는 장으로써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원익아이피에스

## 제 2기 한마음 가족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주)원익아이피에스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마음가족협의회(이하 한가회)의 새로운 주역들이 지난 11월13일 진위R&D캠퍼스, 지제, 화성 3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다.

2주 간의 후보접수를 통해 임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최종후보 7명 중 4명의 차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근로자위원은 각

본부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과 여성대표 근로자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후보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특히 이번 근로자위원에는 권민지 과장이 최초의 여성근로자위원으로 당선되어 눈길을 끌었다. 2015년부터 앞으로 2년간 (주)원익아이피에스 근로자대표로 활약 할 4인방은 반도체사업본부 광경환 대리, 생산기술센터 권민지 과장, DS사업본부 양효성 과장, TGS사업본부 최보길 과장이다. 광경환 대리는 당선소감으로 “저를 믿고 투표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근로자대표로서 모든 임직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 할 테니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원익아이피에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화합의 원익아이피에스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성근로자 대표인 권민지 과장은 “저를 근로자위원으로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더좋은회사,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펼친 제 1기 근로자위원은 기부문화확산, 사내도서배치, 탁구대회, 조직문화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그리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직원을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원익IPS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 대표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3년 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범한 제 2기 근로자위원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美 위스콘신서 MOU 체결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1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저먼타운에서 노바켄(NOVA-KEM)과 합작투자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주)원익머트리얼즈와 노바켄은 합작법인을 설립, 내년부터 2019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5000만불을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전구체(Precursor) 생산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식에는 Dan Knodl 위스콘신주 대표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해 합작 사업에 대한 미국 현지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The kitchen open

지난 11월 26일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임직원 복리후생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식당을 리모델링하면서 명칭을 The kitchen 으로 변경하였다.

업무중 지치거나 break time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는 오픈형 식당으로 미니 셀프바를 설치하여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였다. 이에 이건설 대표는 임직원들의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직원간 소통을 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무역의 날 '1억불 수출 탑 수상'

제5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기업체, 유공자를 위한 기념행사가 12월 17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원익머트리얼즈는 1억불 수출 탑의 수상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 경제 4%' 달성의 중요 요소인 '충북수출 200억 불 달성' 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신원종합개발(주)

2014년 신원종합개발 송년의 밤 행사 및 모범사원 시상식 개최



신원종합개발(대표이사 박영일)은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부터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무식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한 직원들을 치하하고 새로운 2015년을 위한 재도약의 의미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박영일 대표이사의 종무사로 시작된 이번 종무식에서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전 임직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활동을 리뷰하고 2015년 새해소망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어 종무식의 의미를 더했다. 박영일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 경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새롭게 맞이할 청양의 해에는 전 직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만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원종합개발(주)

“독서하면서 조직문화 만들어요” 신원종합개발 이색 경영



신원종합개발(대표 박영일)이 독서 경영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작년 말 회사는 ‘까칠한 존이 회사에서 잘나가는 법’이라는 책을 한 권씩 배포한 바 있다. 직원들이 함께 독서토론을 가지기 위해서다. 독서경영은 원익그룹의 경영 방침 중 하나인 ‘소통’의 실천 방안

으로 시작됐다. 직원들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경험의 폭을 넓히고, 토론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 지난 11월 팀장급 독서토론을 완료했으며, 12월에는 과장급 이하 직원 독서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독서경영의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회사는 2015년부터 독서토론회를 상시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직급별로 공통 도서를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증진 및 소통의 기회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독서릴레이 게시판 운영으로 소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원익큐브

고부가가치 소재비중 30% 이상의 산업자재 전문유통회사! 원익큐브 비전선포식

지난 11월 10일 원익 판교사옥 2층 A/V Room에서 2020년도 비전과 포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이 시행되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최화영 전무의 원익큐브 연혁 및 비전선포 배경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뒤를 이어 오영신 대표의 원익큐브의 새로운 VISION 2020을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설정을 위하여 사업부 별로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마무리로 전직원이 “고부가가치 30%, 산업자재 전문회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비전달성 구호를 제창하며, 다시 한번 비전달성을 위한 포부를 다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임원과 빠짐없이 서로 악수하며 격려와 함께 퇴장하였으며, 비전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제작해놓은 서약 서명판에 전직원이 서명을 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졌다.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주)원익큐브는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2020년도의 비전을 설정하며, 새로운 2015년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회사발전을 위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당사 지점사무소에서 이재경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과 장택용 전 대표이사 퇴임식을 가졌다. 대표이사 이·취임식 행사에는 이문용 부회장과 당사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재경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주)테라세미콘의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세계 1위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5년을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어 △ 첫째, 핵심 요소 기술과 설비를 조기에 개발하여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것 △ 둘째, 최고의 제품과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 할 것 △ 셋째,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사업 경쟁력을 높일 것 △ 넷째, 열린 조직과 역동성 있는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우선 과제로 뽑았다.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장택용 전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축하 속에 공로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장택용 전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축하 속에 공로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201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4년 10월 25일 청려수련원(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에서 “Let’s Play & Happy Together~~~!!!”란 주제로 당사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함께하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OX퀴즈, 닭 싸움, 이어 달리기, 어린이 댄스 경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들간, 가족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2014년 TERA 가족 송년의 밤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산 웨딩의 전당에서 “Good Bye 2014, Hello 2015~!!!”란 주제로 ‘2014년 TERA 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1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2부에서 문화공연 및 퀴즈, 행운권 추첨 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테라세미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5년 새해의 다짐을 위한 뜻 깊은 의미의 자리가 되었으며, 2부에서는 문화공연으로 ‘마린보이’의 마술, 서커스를 관람하고 ‘플레이걸스’의 버라이어티 재즈 퍼포먼스를 감상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소모임 행사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임직원들은 12월 4일 저녁 강남 인근 볼링장에서 볼링 소모임 행사를 진행하였다. 직급과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구성된 팀으로 나누어져 진행된 볼링경기를 마친 후 저녁식사와 상금 수여식으로 마무리된 이번 소모임 행사는 임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임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여 임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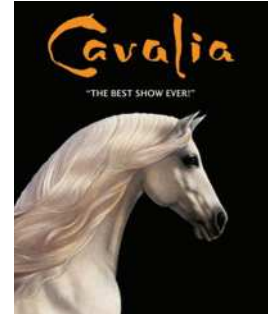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가족행사 시행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12월 19일 가족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가족행사는 저녁식사와 지상 최대의 아트서커스인 뮤지컬 '카발리아' 공연 관람으로 구성되었다. 동료, 가족과 함께 보낸 따뜻한 연말은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주)씨엠에스랩

## Cell Fusion C 2014 러시아 4개 도시 순회 세미나 진행



2014년 9월, Cell Fusion C는 러시아 4개 도시 순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9월 8일 모스크바 (Moscow) 세미나를 시작으로 9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St.Petersburg) 세미나, 15일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 (Krasnoyarsk) 세미나를 마쳤다.

김중서 성형외과의 김중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한 이번 러시아 세미나는 Cell Fusion C 제품을 후처치로 사용하는 한국 저명 의사 및 러시아 현지 의사들의 강연을 통하여 Cell Fusion C의 제품 우수성을 러시아 지역 성형, 피부과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Cell Fusion C의 프리미엄 재생 라인인 ULTIMATE 라인을 (레이저 리췌버네이션 셀룰로오즈 마스크, 레이저 리췌버네이션 미스트, 레이저 리췌버네이션 앰플, 레이저 리췌버네이션 크림) 소개 함으로써 신제품의 성공적

인 시장 안착을 도모하였다.

강연 후 질의 응답을 통하여 한국 시술의 트렌드 및 Cell Fusion C 제품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러시아 저명한 피부과 의사의 초음파 기기 시술 후 Cell Fusion C를 적용하는 Master Class를 통하여 즉각적인 제품의 효과를 본 참석자들은 제품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러시아 시장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Cell Fusion C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씨엠에스랩

### Cell Fusion C, 아시아 최대 화장품 박람회 홍콩 COSMOPROF 2014 성공적 참가

아시아 최대 규모 화장품 박람회인 홍콩 COSMOPROF 2014에 대한민국 대표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Cell Fusion C가 성공적으로 참가하였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 박람회에는 전 세계 43개국 2,362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125개국 약 60,000여명이 방문하였다.

Hall 3E (Professional Beauty Salon) 관에 위치한 Cell Fusion C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얀색과 빨간색을 기본으로 깔끔하고 전문가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홍콩 독점 거래처 LFAsia와 본사가 협력하여 참가하여 홍콩 지역 방문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왔으며,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유통자들과의 미팅 또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까다로운 유럽 기준을 통과한 Cell Fusion C 제품은 중국 위생허가 또한 획득함에 따라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기에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에



서 신 제품인 ULTIMATE 라인을 소개 함으로써 프리미엄 재생 라인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 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클리닉 보유 오너들과 30건 이상의 현장 판매 및 계약 체결을 달성하여 홍콩 지역 유통의 활성화를 시켰으며, 신규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해외 신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브랜드 홍보를 통하여 한국 메디컬 코스메틱 1위 기업이라는 인식을 박람회 방문자에게 알림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 브랜드 네임 밸류 상승 및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렸다. 이는 궁극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원익엘앤디(주)

## 비전 선포식



원익엘앤디(주)는 2015년 1월 6일 메이플비치골프&리조트 2층 대연회장에 전 임직원들이 모여 “HealTainment Creator”라는 비전에 대한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이재천 대표이사의 비전에 대한 기초발언을 시작으로 김기현 부장의 간결한 설명과 준비된 동영상을 감상하며 비전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Open & Share, Human, Convergence, Edutainment 를 핵심성공 요인으로 삼고 “ 감동적인 Boutique Resort & Healing Hub “를 중심으로 2020년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전략 목표를 구체화 하였으며, KOTRA가 84개국서 뽑은 ‘유망 신사업 51가지’ 의 비전과 관련된 신사업들을 통하여 HealTainment Platform을 구성하기 위한 Trend & Issue도 살펴보았다.

원익엘앤디의 임직원들은 “우리는 힐링(치유)하는 즐거움을 창조한다” 라는 비전을 세상과 공유하며 실현시키겠노라 다짐하며, 이 날의 뜻깊은 비전 선포식을 마무리 지었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1 | 自由

32 **Special Edition**  
2014 원익 송년의 밤  
2015 원익 시무식



40 **Special Edition**  
2015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자유’, ‘소통’, ‘행복’ 으로 가득했던 ‘원익 송년의 밤...’

그리고

‘축하’ 와 ‘환영’ 으로 시작된 을미년 새해! 새출발!



2014 갑오년(甲午年)을 마무리하는 '2014 원익 송년의 밤' 과 2015 을미년(乙未年) 새 해를 맞이하는 '2015 원익 시무식'이 지난 12월30일과 1월5일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4 원익 송년의 밤'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원익의 핵심가치가 돋보였고, 2015년 새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은 '축하'와 '환영'의 박수가 가득한 자리였다.





세계 각국의  
와인과 음악,  
즐거움이  
가득했던  
2014  
원익 송년의 밤

원익은 지난 12월30일 오후 5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2014 원익 송년의 밤: 우리(원익인)의 내일을 그려보는 이야기 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원익 송년의 밤'에는 각 계열사 사장단 및 가족, 원익빌딩 내 임직원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원익은 이날 참석한 전 임직원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와인과 칵테일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유럽 와인(간치아 모스카토 다스티, 무통 까데 등), 아메리카 와인(콘차이트로 카르미네르, 에스쿠도 로호 등), 오세아니아 와인(엘로테일 쉬라즈, 버니니, 피터르만 쉬라즈 등)이 1층 로비와 2층 곳곳에 마련 되었으며, 간단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과 과일, 쿠키 등 케이터링 서비스도 준비됐다.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뜻 깊은  
공연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자리



‘2014 원익 송년의 밤’ 행사에 앞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과 다양한 와인, 칵테일을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MBC 20기 공채 개그맨 김상희가 진행을 맡은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음악이 빠지지 않았다. 먼저 3인조 혼성 포커션 밴드 ‘노래하는 풍선껌’이 무대에 올라 ‘광화문 연가’, 만화영화 OST 모음곡,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등을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 인기 예능프로그램 중 하나인 ‘히든 싱어’의 모창 능력자들이 출연해 최고의 가창력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가수 이선희의 모창 능력자 정미애는 ‘인연’, ‘그 중에 그대를 만나’와 민요 ‘어디로 갈까’를 불렀고, 휘성 편 모창 능력자 김진호는 ‘안되나요’, ‘다시 만난 날’을 부르며 가창력을 과시했다. 또 남진 편 모창 능력자 김수찬은 ‘님과 함께’와 더불어 자신의 신곡 ‘간다간다’를 열창했다. 이후에는 전자 현악그룹 ‘ALICE’(앨리스)가 등장, 현악기의 풍부한 질감에 플루트의 아름다운 소리를 더해 웅장하면서도 여





2014 원익  
송년의 밤



성스러운 심포니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에너지틱한 연주를 선보여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는 음악뿐 아니라 연극과 개그 코너도 마련됐다. 소통, 창조, 자유를 주제로 한 연극 '마음을 굽는 빵집'의 출연진(인성호, 김세진, 이태식, 김미라, 강일생)들이 연극의 내용을 원익의 핵심 가치 '자유', '소통', '행복'으로 각색해 선보였으며, 개그맨 조원석과 정찬민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개그와 패러디로 풍자해 웃음을 선사했다.

우리(원익사)의  
내일을  
그려보는  
이야기 여행



이처럼 한 해 동안 원익의 변화와 성장에 열정을 다한 원익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된 '2014 원익 송년의 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음악과 와인의 향연, 뜻 깊은 공연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자리로 마무리 됐다.

---

서로를  
축하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한  
2015년  
원익 시무식

---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를 맞이하는 '2015년 원익 시무식'은 1월5일 오전 10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원익 전 계열사 임원 및 임직원,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무식은 '2014년 원익인상 시상식' 및 '2015년도 임원 사령장 수여식', 이용한 회장의 신년사,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14년 원익인상'은 각 계열사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세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에 걸쳐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과 영입/마케팅 부문 및 생산 부문 등 총 세 팀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2014년 원익인상’ 영예의 대상은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박주환 과장과 생산기술센터 이근혁 과장이 수상했고, 영업/마케팅 부문은 (주)원익큐엔씨 퀴즈영업팀 남경필 부장, 생산 부문은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Cut Down 20 TFT 홍성민 과장 외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2015년 신규 임원 및 승진 임원 사령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원익아이피에스 하형찬 상무가 2015년 1월1일부로 (주)원익아이피에스 전무로 승진했고, (주)원익큐엔씨 최종건 상무, (주)원익아이피에스 백춘금 상무, (주)테라세미콘 이춘행 상무, (주)원익투자파트너스 이기진 상무가 각각 승진임원 사령장을 수여 받았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원익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이 시무식에 참석해 더욱 힘차고 밝은 원익의 2015년을 예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 모집에는 총 4,066명이 지원했으며, 이날 ‘2015년 원익 시무식’에는 최종 합격자 47명이 무대에 올라 첫 인사와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시무식에 참석한 원익 전 계열사 임원 및 임직원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한편 이날 '2015년 원익 시무식'에서 이용한 회장은 "2014년 원익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던 한 해였다"며 또한 "쥘테라세미콘을 원익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 원익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는 밑거름을 만들었고,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해 10월 미국법인 노바켄(Nova-Kem)을 인수함으로써 프리커서(Precursor)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용한 회장은 이어 원익의 기업문화와 인재양성,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신사업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세계적 기술의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소통, 자유와 열정이 넘치는 기업문화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재양성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신사업 적극 추진, M&A를 통한 경쟁력 보강으로 100년 기업의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원익은 지난 2014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5년 새로운 가족이 된 대졸 신입사원을 환영하면서, 보다 더 큰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원익의 힘찬 도약을 알렸다. 이처럼 2015년을 힘차게 시작한 원익이 올해는 또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지 기대된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김동관

2015년도  
승진 인사 및  
신규임원 선임

전무 승진



하형찬 전무  
(주)원익아이피에스

상무 승진



백춘근 상무  
(주)원익아이피에스

상무 승진





이기진 상무  
(주)원익투자파트너스

이준형 상무  
(주)테라세미콘

최중건 상무  
(주)원익큐엔씨

2014년  
원익인상

대상



박주환 과장  
(주)원익아이피에스

대상



이근혁 과장  
(주)원익아이피에스

영업마케팅부문상



남경필 부장  
(주)원익큐엔씨

생산부문상








이수환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홍성민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박성진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송한덕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이인복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김성재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생산팀

## “우리가 원익의 미래다!” 원익그룹 신입사원 공채1기 입문교육 실시

2015년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지난 1월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 모집에는 총 4,066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47명이 합격했다. 1월5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연수원으로 이동해 총 2주간의 합숙 입문교육을 받은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1기. 이들이 앞으로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큐엔씨, (주)테라세미콘, (주)원익큐브 등 계열사에 배치돼 원익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원익을 바로 알고, 기본 소양을 다지다

원익 공채1기 신입사원 47명은 지난 1월5일 판교 원익빌딩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전 계열사 임원 및 임직원에 첫 인사를 한 뒤 강릉 메이플비치로 이동해 2주간의 입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015 원익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1주차에는 원익의 기업문화와 핵심 가치를 알아보는 '원익 바로 알기',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큐엔씨, (주)테라세미콘, (주)원익큐브 등 계열사 상세 소개,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 내재화 과정,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획력 향상', 인사/복지제도를 소개하는 '규정과 방침', 원익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보는 과정 등이 진행됐다. 또한 '원익 도전 골든벨', 진정한 프로정신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 창의적 목표설정을 주제로 한 '사내 특강'도 실시됐다.

교육 2주차에는 '비즈니스 이해', '모의경영 프로젝트'를 비롯해 원익의 핵심가치를 잘 담아낸 퍼포먼스 등 보다 핵심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위한 과정들로 구성됐다. 특히 신입사원들은 이론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각 계열사에서 온 지도 선배와 함께 모의경영을 준비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신입사원의 자세 및 역할'을 주제로 이용한 회장이 직접 교육 현장에 방문해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 무한한 잠재력이 돋보인 모의경영 프로젝트

1월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신입사원들의 모의경영 프로젝트는 총 6개 팀으로 나뉘어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모의경영 발표행사는 신입사원들이 경영실습에 대해 각 계열사별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큐

엔씨, (주)테라세미콘, (주)원익큐브 등 계열사별 1개의 테마를 가지고 10일간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자리로, 신입사원들이 선배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모의경영 발표행사에는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 (주)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 (주)원익머트리얼즈 김철호 전무 등이 참석해 신입사원들의 창의성, 발표력, 논리, 현실성 등을 평가했다. 먼저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비전2020- 매출 1조2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한 1팀과 2팀은 각각 ‘고객다변화(해외 Market Share 중심)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사업기획’과 ‘ALD시장에서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1팀은 “(주)원익아이피에스는 다른 반도체 경쟁사와 비교해 후발주자로 기술보다 양산에 주력했고, 이에 한정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분석, “향후 시스템반도체에 주력해 SK하이닉스, 미국의 글로벌파운더리 등 고객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 교류를 통한 (주)원익아이피에스만의 원천 기술력을 창출 C(Chemical) M(Mechanical) P(Polishing) 기술을 확보한다면 2020년까지 1조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ALD 시장에서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2팀은 “현재 ALD 점유율은 ASMI와 TEL사 두 기업이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업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High-K 공정 개발, 연구자 친화적 장비 개발, MOU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장비부품업체와의 M&A 추진 및 부품 공동개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3팀은 (주)원익머트리얼즈 VISION 2030을 주제로 향후 (주)원익머트리얼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





했다. 3팀은 새로운 혁신과 패러다임을 방향으로 잡아 에너지 사업을 선택,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분석한 뒤 “세계 연료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최근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암모니아 ‘보란’ 으로 경비행기 비행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한 수소연료 제품, 수소스테이션 등에 대해 발표했다. 4팀은 (주)테라세미콘의 ‘제작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을 주제로 인력효율화 방안과 재고 관리를 통한 재무상태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경우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심 인력 효율화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면서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외주,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재고관리 방안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팀은 (주)원익큐엔씨의 비전에 대해 2030년까지 글로벌 TOP5 복합 소재 기업, 첨단 세라믹 분야 진출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주요 첨단 세라믹 제품별 세계시장 규모를 분석, ‘2차 전지 양극재 코팅 기술 개발’과 관련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 femvix와의 합병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원익큐엔씨의 해외법인과 관련해 “한국의 (주)원익큐엔씨 본사를 기점으로 각 나라의 법인 영업부가 미국은 세일즈, 중국은 제조영업, 독일은 제조 유통, 대만은 물류를 담당하면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6팀은 (주)원익큐브의 ‘유통업체로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주)원익큐브가 당면한 문제, 장점과 경쟁력, 미래의 방향성과 전략, 앞으로의 기대효과 등을 정리했다. 이들은 “(주)원익큐브의 물류 시스템 효율성과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국내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신시장을 개척, 유통을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탐색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6팀의 발표가 끝난 뒤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는 “짧은 시간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보고 역시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답게 사고가 열려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며 “원익의 우수한 인재들이 입사해 원익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원익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면서 발전하자”고 말했다.

### 원익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열정 ‘눈길’

모의경영 발표 후에는 신입사원들이 준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와 ‘소통’을 주제로 구성된 창작극은 신입사원들이 대본을 직접 작성, 연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 배우들을 넘어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한 작품. 총 세 팀으로 나누어 연



기, 노래, 안무 등을 선보이며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다.

A팀은 원익의 핵심 가치 중 '자유'를 주제로,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강조했고, B팀은 '소통'을 주제로 편견과 우월주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는 점을, C팀은 보다 효율적인 소통은 '항상 서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했다.

이에 대해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는 “대사와 소품, 연기, 노래 등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꼈다”면서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 오늘 가졌던 이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되고, 지금 옆에 있는 동료 각별한 인연이 될 것이다. 좋은 공연을 펼쳐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의경영 발표는 (주)원익아이피에스를 테마로 발표한 2팀이 1등을 수상했고, 2등은 (주)원익머트리얼즈에 대해 발표한 3팀이 수상했다. 또 퍼포먼스는 '효율적인 소통'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선보인 C팀이 수상했다.

끝으로 이날 이재현 원익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여러분들이 원익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생’에서 ‘완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검손’과 ‘배려’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원익맨으로 힘찬 출발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2 | 疏通

46 **Wonik Business**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



50 **Wonik Dream Team**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2팀



54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넷플릭스(NETPLIX)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DPT 개발로 인한 신시장 진입 성공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이 DPT(Double Patterning Technology) 개발로 인한 신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2014년 4월 평가기가 고객사에 들어가 9월에 제품 qual(품질인증), 12월 양산기가 판매되는 초스피드 개발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프로젝트를 맡은 팀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이에 개발팀 박주환 과장은 올 초 원익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짧은 시간 동안 내부 팀워크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열정으로 성공을 일궈낸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을 만났다.

반도체 제조과정은 크게 Deposition-Photo-Etching의 단위공정을 반복한다.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design rule이 25nm이하의 제품은 EUV 노광설비를 이용한 패턴링이 필요하나 EUV의 생산성과 래티클 관리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양산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DPT(Double Patterning Technology)다. 이는 기존의 Immersion 방식의 노광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광을 두 번(DPT), 또는 네 번(QPT: Quadruple Patterning Technology) 패턴을 겹쳐서 미세회로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박막의 두께 조절이 가능한 Oxide 증착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증착한 박막의 두께가 회로의 CD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1팀은 ALD(Atomic Layer Deposition)기술을 이용한 DPT Oxide 박막을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DPT ALD Oxide 개발로 인한 신시장 진입 성공이 큰 의미를 갖는데 대해 개발1팀 류동호 상무는 “하나의 반도체 Chip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20회 정도의 DPT 공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DPT ALD Oxide 시장은 국내에서만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시장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 끈끈한 팀워크와 열정으로 초스피드 개발 성공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은 반도체 증착공정 중 ALD-Oxide 박막의 개발을 맡고

있다. 류동호 상무가 이끌고 있는 개발1팀은 총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DPT 개발 프로젝트에는 류동호 상무와 박주환 과장, 나두현 대리, 박주성 대리 총 4명이 한 팀을 꾸려 개발을 시작했다.

류동호 상무는 2014년 4월에 평가기가 들어가서 9월에 qual(품질인증), 12월에 양산기 판매가 이루어진 초스피드 개발이 이루어진 성공 요인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류동호 상무는 “경쟁업체인 ASM社, LAM社의 규모가 (주)원익아이피에스의 10~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력이나 연구 투자 규모, 연구원 개인 역량 또한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팀워



크와 현장의 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에 류동호 상무는 팀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외한 다른 주변 업무는 최대한 없앴다. 또한 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엔지니어의 의견을 경청하고 test에 반영했다. 특별히 대리 2명에게는 단순히 시키는 test가 아닌, 왜 선배가 그런 test를 하고 했는지, 즉 선배의 머리 속을 간파하라는 과제가 개별적으로 주어졌다. 이는 그들이 2~3년 후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류 상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원, 대



리가 위에서 시킨 것만 하면 재미가 없다.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고 2~3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기의 의견이 나오더라”라며 “이번에 함께한 나두현, 박주성 대리는 보통 다른 개발자보다 빨리 다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박주환 과장과 나두현, 박주성 대리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목표로 달려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웨이퍼(wafer)에 파티클(particle) 문제로 5일 정도 장비가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나두현, 박주성 대리가 24시간 근무를 자처해 5일 동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박주환 과장은 “솔직히 숨을 못 실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작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팀원들이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나와서 일

을 하는 등 탄탄한 팀워크가 원동력이 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팀원들을 칭찬했다. 이에 대해 박주성 대리는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빨리 성공한 것 같다. 워낙 분위기도 좋고,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생활하는 박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휴일에도 오히려 회사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팀워크를 과시했다. 또 지난해 7월에 합류한 이상우 사원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최선을 다해 한 축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 고객과 한 팀이라는 Win-Win 전략 ‘통했다’

개발1팀의 이번 프로젝트는 팀 내 소통도 좋았지만,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했던 것이 큰 힘이 됐다. 국산 장비지만 외산 장비에 대비해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 고객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Win-Win 전략이 통한 것. 류동호 상무는 “우리는 고객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은 우리 장비를 위해서 평가작업을 했다. 고객과 한 팀이 되어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객과의 소통이 잘 됐다”며 “그 결과, 고객사의 리더가 웨이퍼 에지(Edge) 수율 향상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고, (주)원익아이피에스는 개발1팀 박주환 과장과 RF 부품개발을 지원한 이근혁 과장이 올 초 원익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1팀은 이번 DPT 개발과 관련, 2015년에는 변정우 대표



이사를 주축으로 DPT ALD Oxide 설비의 명품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 제조납기 단축, 품질 향상 등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류동호 상무는 “올해 DPT Oxide 설비의 명품화는 물론, 판매가 시작된 삼성전자 H1 외에도 H2, 3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System LSI와 국내 SK-Hynix, 해외 등 시장을 넓히는 도전도 계속할 것”이라며 “2015년 매출은 30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2016년 이후부터는 매엽식의 ALD Nitride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고객사에 평가기가 입고 되었는데, ALD를 개발하는 총 9개사 중 (주)원익아이피에스의 ALD장비가 평가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면서 “1년 간 잘 준비해서 DPT에 이은 차세대 캐시카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2팀은 지난해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매출 중 95%가량을 차지한 일명 '매출 전담팀'이다. 전진호 상무를 비롯한 25명의 직원들은 Metal project, Memory project, S.LSI project 등 총 세 파트로 나뉘어 근무한다. 각 파트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팀 전체가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큰 포부를 갖고 2015년 새해를 시작한 개발2팀이 올해는 또 어떠한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는 개발 1, 2, 3 팀과 선행개발팀이 있는데, 그 중 개발2팀은 Metal project, Memory project, S.LSI project 등 세 개의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돼 있다. 세 개의 파트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개발2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진호 상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자유로운 소통’에 있기 때문. 그는 누군가 업무 지시를 하기 보다 각자 알아서 자기 연구에 매진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2팀은 전체가 모이는 미팅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궁금한 점과 data를 review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e-mail을 충분히 활용, 개인의 연구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며, 휴식에 대한 시간을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전진호 상무는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온 지 1년이 됐는데,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문서화 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이메일이나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다.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불필요한 일들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고 해서 팀원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개발2팀은 정기적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1년에 두 차례 워크숍을 갖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식사나 워크숍 등에서 술을 한 두 잔 마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평소 업무상 어려웠던 점을 서로 부탁할 수도 있고 해결방안을 보다 쉽게 모색할 수도 있을 터. 이에 대해 이인환 과장은 “워크숍을 업무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발2팀의 경우에는 팀원들이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 얼굴도 보고, 보다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자리는 업무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저녁식사나 워크숍 등의 활동 외에도 업무 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엿보인다. 박영훈 부장은 “팀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탁구를 치는 등 짬짬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요즘에는 업무가 늦게 끝나다 보니 퇴근 후 모바일 게임으로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주운 대리는 “박영훈 부장님과 모바



일 게임으로 장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10전10패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김경수 부장은 “예전에 월별 이벤트를 만들어 2~3달 정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가 바쁘고 출장이 많다 보니 중단됐다. 올해는 다시 월별 이벤트를 부활해 팀원들이 함께 야구장을 간다거나 축구, 탁구 경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수평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서로에 대한 배려

개발2팀은 단지 자유로운 소통에서 그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를 중시한다. 미국에서 10년을 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전진호 상무의 업무 방식에 대해 팀원들은 처음엔 낯설어 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 서로를 상하관계가 아닌 동일 위치에서 동료로 대하면서 즐거운 회사 생활은 물론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전진호 상무는 “소통”에 있어서 무엇보다 ‘수평적인 대

화’가 중요하다. 우리 팀원들 모두는 상사와 부하 사이가 아닌,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관계에 의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수평적인 대화는 팀원들이 서로를 보다 더 배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2월 입사한 김준현 사원은 “처음 입사해 연구소 업무가 어렵기도 하고 많이 긴장하기도 했는데, 선배들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석규 과장님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문의 편지였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임석규 과장은 “나 역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선배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에 많이 남더라. 처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재훈 대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섭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윤원준 부장님과 멘토-멘티 관계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극복했다. 그 중 재테크 상담도 도움이 많이 됐다(웃음)”면서 “중국 시안에 두 달 정도 출장을 갔을 때는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정말 가족처럼 많이 다독여 주셨다”고 출장 당시를 회상했다.

이외에도 윤원준 부장은 “지난해 연구소 내 RS(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 장비가 오래돼 고장이 자주 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줬다. 사실, 동작을 아예 안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었는데, 상무님께서 애로사항을 아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다”면서 전진호 상무의 ‘통 큰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며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2팀의 팀원들은 올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진호 상무는 “지난해 미국의 GF라는 회사에 ARC/SiON 공정, 장비가 판매되어 해외 시장의 개척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해외로 우리의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며 “올해 역시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매출은 우리 팀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etal 파트 박영훈 부장은 “Metal 파트는 매년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필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기업의 대표주자 넷플릭스



미국에서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넷플릭스(NETFLIX)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분야에서 최강자로 통한다. 1997년 인터넷 기반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 2007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 넷플릭스는 전통의 비디오 렌탈 회사인 블록버스터를 파산으로 이끈 장본인. 우편으로 최신의 비디오나 DVD를 주고 받는 사업을 연간 단위 멤버쉽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VOD(Video on Demand) 사업과 셋탑박스, 그리고 각종 스마트 TV사업에 빠지지 않는 단골 협업 파트너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한 달 8.99달러의 회비로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현재 전세계 50개국 5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다. 2014년에는 광고 없이 회비로만 4조8000억 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으며,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34.89%를 차지해 경쟁 서비스인 아마존 비디오(2.58%), 유튜브(14.04%)를 압도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모든 경영대학원이 케이스스터디로 다루고 있으며, 패스트컴퍼니의 2014년 혁신기업 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 넷플릭스의 경쟁력

넷플릭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한 달에 우리돈 1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VOD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단말기에서 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넷플릭스의 핵심 경쟁력이 있다. 바로 다양한 '콘텐츠'.

넷플릭스는 소니, 디즈니 등 유수의 제작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인기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마르크 폴로'를 직접 제작해 독점 방영하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특정 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넷플릭스를 UHD TV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북미와 유럽에서 UHD TV에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



스팅스(Reed Hastings)는 “앞으로 모든 TV에 넷플릭스 서비스가 내장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 넷플릭스의 기업문화 : 자유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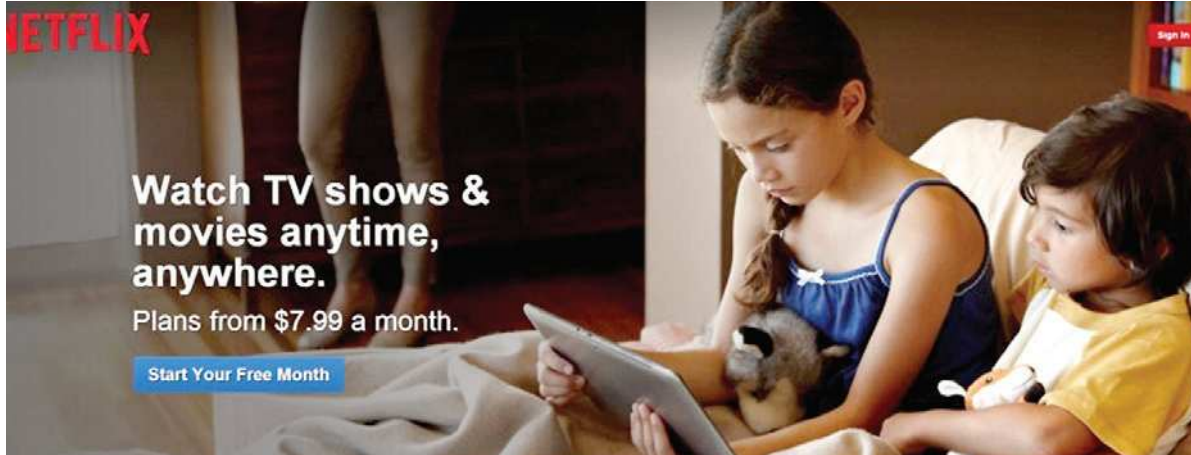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로 유명하다. 넷플릭스는 마치 프로야구팀과 유사한 데, 각 포지션 별로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를 두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급여를 주고 직원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직원들의 출, 퇴근 시간은 의미가 없고 휴가를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가는지도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어떤 면에서는 냉혹할 만큼 ‘책임’을 중시한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적당한 수준의

성과만 내는 평범한 직원들은 퇴출시킨다. 과거에 아무리 기여가 컸다고 해도 더 이상 A급 직원이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 한다.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언제, 무엇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특히 넷플릭스의 직원들은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경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비워도 된다. 넷플릭스는 다른 회사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을 퇴출시키거나 스스로 퇴직을 원할 때 두둑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넷플릭스는 “두둑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여유를 갖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금전적인 완충 구실을 한다. 또한





직원을 떠나 보내야 하는 관리자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 넷플릭스 한국 진출

한편 넷플릭스는 내년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2016년 초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최근 한국 시장 전담팀을 국내에 파견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 한국은 최적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으로 꼽힌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 사용자들도 회비를 내고 무제한 시청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사용 방식과 저렴한 가격, 방대한 콘텐츠



의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와 한국 영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관계자들은 “국내 진출 초기



에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이나 한국 영화까지 포함해 VOD 서비스에 나서지 못한다면 큰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성공은 국내 지상파 채널과 한국 영화 콘텐츠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할 넷플릭스가 과연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_넷플릭스 홈페이지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 SECTION 03 | 幸福

58 **Talk Box**  
2015년  
새해소망 새해계획



64 **Zoom in**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과장 김진열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2015

새해소망

새해계획

〈취원의 SONO팀  
전명근 사원

2014년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쌓아왔던 무관심과 사회적 부조리가 문제로 들어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저희 원익과 관련된 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한해는 우리나라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원익 또한 이러한 변



화의 목소리를 피해가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도약을 위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내부 업무를 줄이고, Free Zone 운영을 위해 자리배치가 달라지고 인사이동 또한 있었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청’을 뜻하는 푸른색은 진취적이며 매사에 빠른 속도로 일에 임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한 성격 덕분에 이해심이 뛰어나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청양의 해인 올해는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되는 긍정적인 기운의 해라고 합니다.

원익의 변화도 저에게는 청양의 의미처럼 모든 일이 잘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변화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처럼 성실하게 임하며 팀과 회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두려움은 ‘기회’로 전환될 것임을 믿습니다. 청양의 좋은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2015년도 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보내고자 합니다.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생산팀**  
**배수민 기사**

“2014 갑오년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왔습니다. 양은 동물이 본래 온순하여 주인 말을 잘 듣고 사회 생활을 잘하고 적응력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아내의 뱃속에 작은 심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7월 초 경이 출산 예정인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 시기입니다. 첫째가 아들이라 둘째는 양의 온순함을 닮은 이쁜 딸이 태어나줬음 좋겠지만 아들이다 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줄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2015년의 계획과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 같길 기도합니다. 2015년 여름휴가 쉼이면 저희 가족은 1명이 늘어나 4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다 보낸 것 같네요.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이며 계획입니다. 우선 쉬운 것 부터 ITQ OA 마스터,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까지 올해는 총 3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며 가능하다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줄이고 학업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니깐요.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 낸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나 세우지 않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임을 느낍니다. 2014년은 제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였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되돌아 보면 머릿속이 하얗고 많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2015년 연말에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새해에는 푸른 초원위의 양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우리 다 같은 식구인 원익QnC 직장 동료분들 역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강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웃을 수 있는 밝은 나날을 보내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행복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Happy New Year.”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영업팀**  
**이정구 팀장**

2014년을 떠나보 내기 며칠 전, 가족들과 설악산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권금성에 올라 찬바람을 맞으며,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등산이 아니고, 케이블카로 5분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면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지

못한 후회를 올해는 하지 않기 위해서, 쉽지만 어려운 목표인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자”를 금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 웃는 모습보다는 언제나 짜증스러운 말과 행동을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여 준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최고의 진통제는 웃음이라는 글을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위적인 약물투여 보다는 웃게 만듦으로서, 아픔을 잊게하고, 상처의 치유속도도 빨라진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치유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라고들 합니다만, 서로를 경쟁상대라 적어 아닌 동료로서, 또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강력한 미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만병통치약을 2015년부터는 차곡차곡 제 마음의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매일 매일 선물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제 주위에 오시는 모든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신원종합개발(주) 재경팀  
안혜원 사원**

2015년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해는 청양피의 해라고 하여 양의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성격과 푸른색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더불어 인간관계가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되는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해라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지났으니, 또 다시 희망차게 신년 계획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째, 건강과 업무 능력을 동시에 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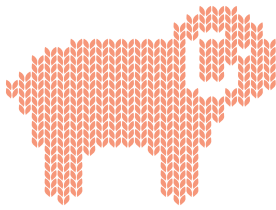
내 몸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기 관리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막대한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제 스스로

도 웃기기는 합니다만, 날이 추워질수록 움직이기를 꺼려하고 게으름과 동시에 체중까지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 이번 새해에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고쳐 건강도 지키고, 업무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 보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막연하게 건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만을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닌 정신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저의 건강 관리법은 힘들다는 생각보다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끔 노래를 들으며 하루에 삼십 분씩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목표 속의 작은 목표를 세워 춤 안무라든지, 요가 동작 몇 가지를 익히는 것이 제 첫 번째 새해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둘째,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자.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야 앞둔 새내기인지라 처음 입사하여 겪는 회사 생활은 막막하고 겁부터 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익숙한 것들이라곤 찾아 볼 수도 없었고, 학교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조직체를 쉽게 적응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업무에 대한 과정을 익히며 날이 갈수록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씩 스스로 해낸다는 성취감은 정의를 내려 표현할 방법도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 생활에 꽤 적응하기 시작하자 내 것으로 만드는 성취감에 욕심이라도 생긴 것인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생겼나 봅니다. 지난해에는 회사에 적응하기 바빠 여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 일 년이었다면, 이번 해에는 자격증이나 봉사 활동, 취미 등으로 그때 느꼈었던 성취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제 자신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셋째, 청춘이면 청춘답게 즐겨라.

흔히들 ‘청춘’ 하면 패기, 열정 등 듣기만 해도 힘이 솟는 단어들만 연상됩니다. 그만큼 청춘들은 세상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젊은 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고 내 자신을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나이에 목표가 생겨 선택한 자리인 만큼 후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어.” 하며 제 자신을 칭찬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꿈꾸던 이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으로 유지하기란 어렵겠지만 할 땀 하고, 놀 땀 놀 수 있는 여유를 유지하며 나만의 청춘을 즐기는 것이 이번 해 가장 큰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 원익엘앤디(주) 경영지원팀

윤성욱

여러 방면에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2014년 3월 원익엘앤디(주)에 입사하여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접했으며 때론 힘들었고 때론 즐거웠던 한해였으며 많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았던 유익한 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익이란 그룹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던 한해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이란 후회감도 남아 있지만 이러한 2014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지 않을까란 생각에 마음을 다잡는다. 똑같은 후회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2015년에는 이렇게 하리라 다짐해본다.  
하나, 아침의 시작은 오늘 할 일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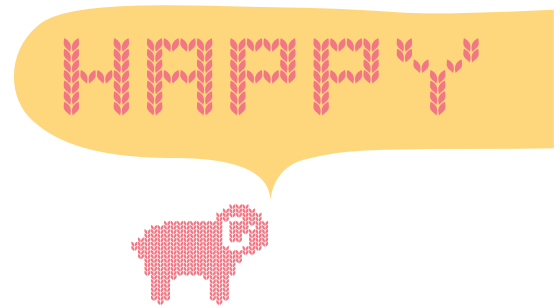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일을 해보며 내가 당일 할 일을 산만하게 처리했던 것 같다. 아침에 할 일을 정리하며 하루 스케줄을 정리해 계획적인 일처리를 해보고 싶다.

둘, 주변인에게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현재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주변인들에게 매우 친절한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 두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셋, 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내 직무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작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내 스스로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던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묻게 되는 경우였다. 올해에는 직무관련 교육을 찾아서 듣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갖고 일에 임하고 싶다.

넷, 자유롭지만 소통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들을 자세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스스로가 청렴결백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우선 이 다섯 가지만 지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게 나의 소망이다. 2015년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는 해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정열적으로 살아갈 계획이다. 치열하고 정열적이지만 주위를 돌아보며 사소한 것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빌어본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반, 즐거움 반을 갖고 오늘보다 즐겁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매일매일 창조하는 creator가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원익엘앤디(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위닉스 개발팀**  
**최현진 부장**

새해에 거는 기대와 소망!  
올미년 새해가 시작 되면서 모두  
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새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해가 지나 갔을때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운다는 그 것 자체만으로 좋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과연 2015년의 새해의 소망은 무엇일까?

나의 가장 바라는 소망은 가족들의 건강이 최우선일 것이다. 가족들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든 할 수 있고 언제나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 갈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해도 건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힘이 들테니.

그리고 2014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소망인 결혼 일 것이다. 짝신도 언젠가는 제짝이 있듯이 나의 짝이 언제 가는 만날 것이다. 다만 언제 만날 것인가 문제지만 올미년 새해에는 꼭 그 반쪽을 만났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짐의 시간 등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 소망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이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왔던 가족 여행! 올해에는 가족과 함께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여행들을 많이 찾아가서 삶을 뒤돌아 보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2015년 올미년 새해는 많은 것을 바라고 성취하는 그런 해 보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로부터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일상들로 인해 넘치는 여유들을 내 옆에 앉은 혹은 조금 멀리 앉아 있지만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주)원익큐브 전략사업부 무역팀**  
**김미선 대리**

새해 계획 및 새해 소  
망이라 하면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지만, 올해 나의 새해 계획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

한 한 해 만들기” 이다. 지금까지 세워 왔었던 새해 계획들에 비하면 소박하고 이루기 쉬워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쉽지만은 않은 계획이다.

2014년 기억에 남는 추억, 마음이 따뜻했던 하루, 맛있었던 식사를 생각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날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1년 365일, 1일 3식이면 총 1,095번의 식사를 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날들, 맛있었던 식사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갑자기 서글퍼 지기도 한다. 하루 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멀리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비싼 선물, 현금 선물 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씩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상 차려주기,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 생일 축하 손편지 쓰기,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등 작은 것이지만, 얼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일부터 시작하겠다.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하게 웃는 얼굴이 나의 2015년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원익큐브 화학2팀**  
**박찬중**

올해 딱 30이 되었습니다. 작년  
을 돌아켜보면, 정신없이 20대  
의 마지막 해를 보냈던 것 같습

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고생스런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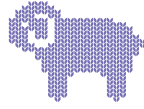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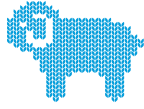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목표로 했던 첫 해외를 다녀올 수 있어서 위안을 삼습니다. 3박4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진작에 나가지 못했을까..’하는 원망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때 열심히 참여했던 농구동아리 모임에 참석할 때,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NEW

YEAR



‘많은 걸 경험하고, 경험해라’  
정작 저는 경험은 많이 못했으면서, 주제넘은 조언을 해준 거 같아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2015년 새해계획은 “업그레이딩” 입니다.  
첫 번째는 ‘견문화장’ 입니다. 작년에 첫 해외여행과 첫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막상 가보니깐 별거 아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해외 1번, 국내 2번 못 가본 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입니다. 회사 내 헬스장에서 주2~3회, 농구 동호회에서 월2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바다면,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힘듭니다. 튼튼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독서’ 입니다. 독서는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회사 내 도서대여를 20권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다 읽은 건 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미생이란 만화책을 빼면, 3권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해에는 한 달에 한권 독서가 목표입니다.  
이상 소소하게 제 개인적인 2015년 새해목표를 적어보았습니다.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올 한해도 달려보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설비개발팀**

**양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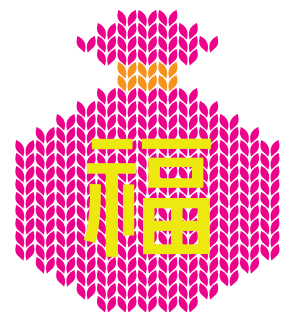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익  
IPS 설비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효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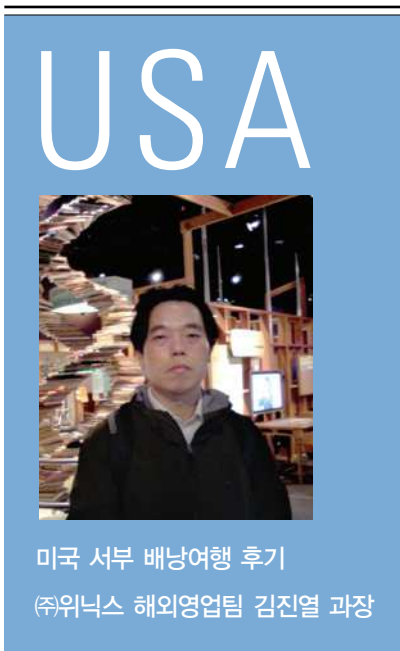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두가지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2월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아직도 때론 철이 없는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행복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2년 6개월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나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을 때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은 무한한 힘을 준다는 것을 저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 15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단칼에 끊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다가오는 무거운 책임감을 멋지게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번째는 올해부터 2년간 제가 원익IPS DS사업본부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맡게 되었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문득 원익IPS가 저에게는 2번째 가족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작게는 설비개발팀에서 크게는 원익IPS까지 모든 분들이 저에게 제2의 가족인 것입니다. 입사 초기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근로자위원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원익IPS를 위해 그리고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가족분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서부 배낭여행,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뜻 깊은 여행!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김진열 과장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13일 까지 일주일 간 미국 서부(San Jose, Sunnyvale, Mountain view)를 다녀왔다. 구글플렉스(Googleplex) 기업 탐방, San Jose의 시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지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Winchester Mystery House), 지난 2002년 (주)위닉스가 전시회를 했던 장소 등을 방문한 김진열 과장은 이번 배낭여행에 대해 “나 자신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은 일이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가슴 뿌듯한 경험

1998년 학창시절, 6개월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경험이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김진열 과장이 미국 서부 배낭여행을 통해 뜻 깊은 시간들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원익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해외 배낭 여행을 통한 변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지난해 여름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 이현준 과장과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무 수지영업2팀 유기연 부장에 이어 12월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김진열 과장이 미국 서부 지역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있지만, 배낭여행은 처음이라 출발 전부터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다. 배낭을 꾸리고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부푼 기대감은 출발 하루 전 잠을 설칠 정도였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고, 드디어 시애틀에 도착, San Jose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환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했던 경험이 떠올라 추억을 되새겨보기도 했다.

San Jose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 자동차를 렌트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나는 신용카드 해외승인이 되어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렌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해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가까스로 차를 렌트할 수 있었다. 여행의 시작인 자동차 렌트부터 일이 꼬이는 바람에 당황은 했지만 결국 자동차 렌트도, 처음 접한 미국 도로 운전도 스스로 해냈다는 것이 뿌듯했다.

구글플렉스(Googleplex)와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Winchester Mystery House)

Mountain View에 있는 구글플렉스(Googleplex)에 방문했다. 말로만 듣던 구글플렉스는 한 눈에 봐도 자유로운 기업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역시 세계 일류 회사답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윈익 역시 '자유',

'소통', '행복'을 핵심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내가 그곳의 일원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San Jose의 시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지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Winchester Mystery House)는 미스터리한 사연과 건축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가구와 건축 양식들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곳은 윈체스터 소총을 만들어 큰 돈을 번 윌



리엄 윌트 윈체스터의 미망인 세라 윈체스터가 무려 38년 동안 공사를 지속한 집으로, 총 160개의 방과 47개의 벽난로, 난방과 화재 예방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당시로는 엄청난 건축기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가이드에 따르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사라 윈체스터는 안타깝게도 윈체스터 소총에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자신의 남편과 딸을 죽였다고 생각, 영혼을 달래기 위해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서 38년간 지어진 이 집에는 언제든지 혼령들을 피할 수 있도록 숨겨진 방과 비밀 통로 등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남아있었다.



### 특별한 경험이 선사한 자신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

San Jose 시내를 구경하면서 2002년 우리 회사가 전시회를 했던 'Convention center'를 방문했는데,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전시하며 바이어와 상담을 하던 기억이 떠올라 감개무량 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미래의 나' 자신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일류 기업의 문화를 직접 보고, 관광지를 나홀로 찾아가고 경험함은 물론, 과거 신입사원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볼 수 있었던 이번 해외 배낭여행 기간 동안 나는 전보다 훨씬 스스로 성숙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원익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북돋아 주며 자신감을 키운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앞으로 나와 회사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거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처럼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해준 원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6 LIFE STORY  
8 Musical  
뮤지컬 '라카지'



지난 2012년 국내 초연대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라카지'가 더욱 뜨겁고 화려한 무대로 돌아왔다. 현재 서울 LG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라카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스타들이 다시 뭉쳐 초연에 이어 또 한 번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 탄탄한 작품성 입증하며 흥행돌풍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니 어워즈 작품상 3회를 수상하고 탄탄한 작품성으로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며 전세계 관객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라카지'는 2012년 국내 초연 당시 개막 첫 주부터 환호와 기립박수가 이어지며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라이선스 초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언론은 뮤지컬 '라카지'에 대해 “남성 군무진은 이 작품의 숨겨진 보석”, “오랜만에 보는 완성도 높은 라이선스”, “좌중을 압도하는 가창력, 섬세한 연기가 완벽한 작품”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라카지'는 그 해 개최된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베스트외국뮤지컬상, 남우조연상, 안무상, 앙상블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화제작임을 입증한 바 있다.

#### 뮤지컬 '라카지'가 선사하는 특별한 감동

1973년 프랑스의 극작가 장 프와레(Jean Poiret)에 의해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진 후, 동명의 뮤지컬로 1983년 8월21일 브로드웨이 Palace Theatre에서 초연된 뮤지컬 '라카지'는 클럽 '라카지오편'을 운영하는 중년 게이 부부의 아들이 극우파 보수 정치인의 딸과 결혼을 선언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린다.



# 당신을 매혹시킬 화려한 무대 !

## 뮤지컬 '라카지'

가족간의 애틋한 사랑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이 작품은 빅밴드의 낭만적인 선율과 함께 빠른 스토리 전개와 따뜻한 가족애의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화려한 무대와 웃음 뒤 가슴 깊이 전해지는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정성화-남경주 등 다시 돌아온 초연 주역들과 새로운 멤버들의 호흡

뮤지컬 '라카지'는 초연멤버인 배우 정성화, 김다현, 남경주, 고영빈, 전수경, 유나영, 김호영과 함께 배우 이지훈, 송승환, 이경미, 최정원, 유승엽, 정원영, 서경수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더욱 강력한 무대를 보여준다.



다정다감한 아내와 엄마 '앨빈' 이자 클럽 '라카지오편'의 전설적인 여가수 '자자' 역에는 배우 정성화, 김다현, 이지훈이 맡았고, '앨빈'의 남편이자 클럽 '라카지오편'의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 '조지' 역은 남경주, 고영빈이 캐스팅 됐다.

또한 극우파 정치가 '에두아르 뎡동'은 송승환, 김태한, 그의 부인인 '마담 뎡동' 역에는 이경미, 전수경이 함께한다.

초연 당시 재치 있는 연기로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다시 보고 싶은 캐릭터로 뽑힐 정도로 큰 인기를 모은 남자 집사 '자코브' 역에는 김호영과 유승



엽, 앨빈의 친구이자 레스토랑의 여사장인 '자클린' 역은 유나영, 최정원, 앨빈과 조지의 아들인 '장미셸' 역에는 정원영과 서경수가 캐스팅 돼 초연보다 더 사랑스러운 '장미셸'을 보여준다.

여기에 연출 이지나, 음악감독 장소영, 안무 서병구 등 초연의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다시 힘을 합쳐 관객들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한다. 이처럼 2012년 초연에 이어 2014-2015에도 최고의 캐스팅과 작품성으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흥행 중인 뮤지컬 '라카지'는 오는 3월8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사진출처\_뮤지컬 '라카지' 홈페이지

### 뮤지컬 '라카지' (Musical La Cage)

공연장소 : LG아트센터  
공연기간 : 2014년 12월9일 ~ 2015년 3월8일  
공연시간 : 평일 8시  
          토요일 3시, 7시30분  
          일-공휴일 2시, 6시30분  
          월요일 휴무  
관람료 :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리닝타임 : 160분 (인터미션 15분)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관람가  
          (미취학 아동 관람불가)  
티켓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LG아트센터 02-2005-0114  
공동제작 : (주)어컴퍼니, CJ E&M,  
          (주)PMC 프로덕션  
문의 : (주)랑 1666-8662





7  
0

LIFE STORY  
Exhibition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의 첫 번째 부인이자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매카트니의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6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서울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린다 매카트니의 사진전에서는 비틀즈, 도어즈,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클랩튼, 롤링스톤스 등 세기의 뮤지션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과 매카트니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 작가가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사진 200여 점이 선보인다.



오랜 시간 대중문화를 이끌어 온 잡지 '롤링 스톤(Rolling Stone)'의 커버에 사진을 장식한 최초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매카트니는 도어즈(The Doors)에서 비틀즈(The Beatles)에 이르기까지 음악계 최고의 아이콘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작가로 인정 받아왔다.

특히 비틀즈의 멤버이자 남편이었던 폴 매카트니, 그리고 그녀의 딸인 메리 매카트니와 스탈라 매카트니가 전시 기획에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하는 이번 한국 전시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에서 관람객들은 화려한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왔던 린다의 진심 어린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린다의 대표작인 세기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담아낸 'Chronicler of the Sixties' (1960년대 연대기)와 매카트니 가족의 삶의 기록을 담아낸 'Family Life' (가족의 일상)가 공개된다. 또한 워커 에반스(Walker

Evans)와 같은 미국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Street photography)에서 영향을 받은 'Social Commentary' (사회에 대한 시선) 그리고 그녀와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아티스트들이 바라본 그녀의 모습을 담은 'Portrait of Linda' (린다의 초상화) 등 200여점의 사진 작품이 한 자리에서 소개된다. 더불어 린다와 사진 작업을 함께 해온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녀가 참여했던 레코드,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사진실험기법 등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콘텐츠가 전시된다.

린다 매카트니의 사진 속에 담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예술적인 시도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진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인정 받는 사진작가만이 아닌 사회활동가, 그리고 가족에 헌신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온 린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린다 매카트니(Linda McCartney)(1941~1998)

“나는 카메라를 통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향한다.”

1941년 뉴욕의 스카스데일(Scarsdale)에서 태어난 린다 매카트니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전문 사진 작가로서 세계적인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

촬영하기 시작, ‘롤링 스톤’ 잡지의 커버사진을 장식한 최초의 여성 사진 작가로, 롤링 스톤스, 도어즈,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크랩튼, 비틀즈에 이르기까지 20세기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포착한 사진작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린다의 사진은 피사체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 안의 솔직한 감정을 이끌어 낸 이미지로 주목 받아왔다. 대학시절 처음 접한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과 같은 사진 작가들의 작품과 성장하는 동안 경험했던 예술 세계로부터 작업에 대한 풍부한 영감을 받았다. 특히 그녀가 존경했던 사진작가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와 윌리엄 헨리 폭스 탈봇(William Henry Fox Talbot)의 영향을 받아 전통 사진 기법을 이용한 수작업 프린트를 만들었고, 순간을 포착하는 스냅 사진의 미학, 컬러 사진과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사진 스타일을 완성했다. 린다의 사진은 초현실주의적인 특징과 유머를 담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와 결혼 이후 린다는 사진작업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악작업 등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시켰으며, 1989년부터는 채식주의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가 첫 번째로 발표한 채식주의 요리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한편 린다는 1998년 유방암으로 사망하기 이전까지도 사진 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그녀의 작품은 뉴욕 국제 사진 센터,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됐다.

사진출처\_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홈페이지



###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

전시장소 :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림미술관  
전시기간 : 2014. 11. 06~ 2015. 04. 26  
주 최 : 대림미술관  
Linda Enterprises Limited





7 LIFE STORY  
2 Health  
커피의 진실



최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커피'가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는 한국인이 1인당 하루에 약 2잔, 주당 소비 빈도 12.2회로 나타나 2위 배추김치(11.9회), 3위 설탕(9.7회), 4위 잡곡밥(9.6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와 주식인 '밥'보다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더 많은 것.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비롯한 많은 성분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과연 좋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소개한다.

하루 2~3잔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  
그 이상은 농도 조절해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또한 이뇨 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심장박동 횟수를 늘려 심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실

제로 커피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테오필린이란 성분이 나오는데, 이는 천식치료제의 대표적 성분이다. 단, 폐기능 검사를 앞두고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폐기능이나 천식이 좋아진 것으로 오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 이처럼 하루 2~3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루 4잔 이상의 커피(성인 기준 카페인 400mg)를 마시면 숙면 방해, 신경 과민, 두통 등의 증상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하루 약 2~3잔의 정도만 마시는 게 좋다. 만약 그 이상을 마시게 된다면 커피의 농도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향을 음미하며 마시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카페

#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인이 체내에 많이 들어가면 포화 상태가 되고, 이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더 이상 각성 효과가 없다.

##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마시자

하루 2~3잔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특정약을 복용하거나 지병이 있다면 커피 섭취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과다 체중 또는 비만이라면 블랙 원두 커피 이외의 첨가물을 넣은 커피는 적게 마셔야 한다. 블랙 원두 커피는 열량이 10kcal 미만이지만, 커피 믹스는 50~80kcal, 라떼는 200kcal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다면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좋다. 기계로 추출한 커피에는 '크레마'라는 부드러운 거품이 내려지는데 이는 원두의 지방 성분이다. 크레마는 커피에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하지만,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종이 필터에 내리면 지방 성분의 95%가 걸리므로 핸드 드립 커피나 커피 메이커 등의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우유 한 잔을 먼저 마셔 칼슘을 보충한 다음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커피는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평소 체내 칼슘 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유와 커피를 함께 마시는 라떼 종류는 우유의 칼슘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므로 커피를 마시기 전 미리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치즈를 곁들이면 속쓰림을 완화시켜준다. 카페인에 산 성분이 있어 위산 분비를 늘리는데, 치즈가 이를 예방한다. 만약 커피만 마실 경우에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찬 물로 한 드롭씩 내리는 더치커피가 좋다. 더치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카페인의 농도가 3분의 1 정도로 낮다.

또 커피 속 마그네슘, 칼륨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에 따라 저혈당인 사람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더 떨어지기 쉬우므로 커피를 마실 때 초콜릿, 쿠키 등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커피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젠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내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아연이 함유된 비타민을 먹을 때 커피가 아연 흡수를 방해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 소염진통제의 성분은 커피의 카페인과 체내에서 만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커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달라지는  
경제정책  
아는것이  
힘이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이미 이슈화 된 바 있는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최저임금 인상,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월세소득공제 방식 전환 및 대상 확대, 진료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 도입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지난해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담뱃값 인상안은 예정대로 1월1일부터 2천원 인상됐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 업주 1차 적발 170만원, 2차 33만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기준 및 수급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93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20만원이던 최대 수급액은 4월부터 20만3600원으로 오른다.

**최저  
임금  
인상**

2014년 521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1%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준 4만4640원이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이 올해부터 다시 강화된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이후 발표된다.



#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 도입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이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 하면,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2월에 발표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확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최초 6개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17년 이후 소득분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 월세소득공제 방식 전환 및 대상확대

월세지급액의 6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 10%를 세액공제(최대75만원)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대출 만기일 한 달 이전에 통지

은행은 대출 만기일 한 달 이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는 만기 날짜 일주일 이전에 알려줘야 한다.

## 진료비 부담 완화

8월부터 병원의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는 A형 간염이 추가되어 5월부터는 12~36개월 어린이의 경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는 현행 75세 이상 보험 적용에서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진다.





7 LIFE STORY  
 6 Economy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주택  
 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선정 절차 또한 간소화 되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줄어든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그동안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훈련신청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그동안 완구 등 40개 품목만이 안전관리대상이었지만, 오는 6월4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사병  
 봉급  
 인상

사병봉급이 2014년보다 15% 인상됨에 따라 이병은 월 12만9400원, 일병은 14만원, 상병은 15만4800원, 병장은 17만1400원을 받는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실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직접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이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받는 구조로 시행된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5년 신년호 원익사 통권 41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주)원익 고건호  
이기복

---

---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

---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한영석

---

---

(주)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개발1팀  
개발2팀

---

---

(주)원익머트리얼즈 신희숙

---

---

(주)위닉스 안희태  
김진열

---

---

(주)테라세미콘 최낙준

---

---

(주)원익큐브 윤세련

---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윤용인

---

---

(주)씨엠에스랩 오삼열

---

---

원익엘앤디(주) 김기현

---

---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

# ULTIMATE Laser Rejuvenation 얼티메이트 레이저 리쥬버네이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장벽강화 임상테스트 완료

### 얼티메이트 레이저 리쥬버네이션 앰플

고농축 EGF 콤플렉스가 30% 함유되어 피부 기능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지친 피부, 스트레스 받은 피부, 나이든 피부의 주름·탄력·볼륨까지 젊어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리쥬버네이션 셀룰로오즈 마스크, 앰플, 미스트, 크림

**Cell Fusion C**  
CELL MEMBRANE STRUCTURE

ULTIMATE

Laser Rejuvenation Cellulose

Providing hydration, Strengthening the skin, Improving skin texture, Calming irritations, and cooling the skin

Stressed skin / All skin types  
DERMATOLOGICALLY TESTED

**Cell Fusion C**  
CELL MEMBRANE STRUCTURE

ULTIMATE

Laser Rejuvenation  
Ampoule

**Cell Fusion C**  
CELL MEMBRANE STRUCTURE

ULTIMATE

Laser Rejuvenation  
Mist

Providing hydration, Ionized moisturizing, Improving skin texture, Strengthening the skin

Stressed skin / All skin types  
DERMATOLOGICALLY TESTED

**ULTIMATE**  
Laser Rejuvenation Cream

Strengthening the skin, Improving skin texture, Providing nourishment

Stressed skin / All skin types  
DERMATOLOGICALLY TESTED

다우에이징 피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 나이보다 더 젊어진 피부를 경험해보세요